

도선스님 풍수대가로 '비하'

문체부 '내년 7월 문화인물' 선정...교계 역사왜곡 우려

문화체육부가 내년 7월의 문화인물로 선정할 도선스님을 단 순히 '풍수지리설의 대가'로 부 각시켜 설명하고 있어 스님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올바른 인 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는 교계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문체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 하면 '도선스님은 827년에서 898년까지 살았던 신라승려'라



고 밝히고, "도선스님이 쓴 풍 수지리설과 음양도합설을 골자 로 한 <도선비기>는 정치·사 회면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 문체부는 이 상의 설명에 대한 부연으로 '풍수지리설의 대가'라고 칭하 고 있다.

이와관련 선종의 대가이자 대 사상가인 도선스님을 단순히 풍

수지리설의 대가라고 비하시키 는 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 라는게 교계의 주장이다.

동국대 김명태교수는 불교계 인물중에서도 특히 스님이 선 정된 것은 무엇보다 축하할 일 이나 "불교계뿐 아니라 민족문 화창달에 크게 기여한 역사적 인물을 공공기관에서조차 오도 하고 있는 것은 후세 교육차원 에서도 위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도선스님은 15세에 월유산 화 엄사로 출가해 화엄학과 교종· 선종에 통달했다. 학문을 두루 갖춘 스님은 전국 명산대찰을 둘러보고 선한 기가 흐르는 터 에 산문을 열었다. 일반인들의 오희는 여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학계에서는 짐작하고 있다. 수행 히기에 적합한 터를 가리기 위 해 시작된 도선스님의 택지(擇 地)는 원시불교에서 태동한 '만 다라 택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

◊선종(禪宗)의 대가이자 대사상가인 도선스님의 영 정. 스님은 '만다라 택지법' 중 택지법을 주축해 한국불 교의 한 획을 그었다.

다. 만다라 택지법의 처지법(治 地法), 관지상법(觀地相法), 관 지질법(觀地質法) 중에서도 처 지법을 주로 한 스님의 학문은 비보사탐설(秘寶寺探說)의 기조 를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내년 2월 도선국사의 발자취 와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는 내 용을 다룬 역사소설 <도선국사> 를 발표한 계획인 김종복씨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학을 아 무런 검토없이 선(禪)의 대가이 지, 해동 도가(道家)의 맥을 이 은 도선국사를 국민들을 대상으 로 하는 사업에서 단순히 풍수 지리설의 대가로 알리는 것은 또다시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불자들은 내년 7 월 '도선스님의 달'을 앞두고 "불교계와 문체부가 보다 정확 히 스님의 사상을 알리기 위 한 자료수집과 연구에 몰두해 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필선 기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성철스님 구도의 삶 영화로

열반 2주기를 맞는 성철스님 의 삶이 영화화된다.

최근에 신설된 금산영상사업 단이 창립작품으로 마련한 '산 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는 정인엽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축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만인의 심금을 울렸던 다 비사를 재현하기위해 할리우드 의 특수모형 조형과 촬영팀이 함께하고 폐사된 신라시대 사 찰도 완전 복원키로 했다.

그동안 큰스님의 인간상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관객들에게 전달하려는 영화화 작업은 수 차례 걸쳐 여러 영화사에서 거 론되나 있으나 성사되지 못했

었다. 제도가 시작된 1980년 1월부터 93년까지 비구니 계율강의를 비 구니 교수사가 전담해 왔었는데 지난해만은 비구니스님이 비구니 계율 강의를 맡아 비구니 계단 의 정서에 문제가 되고 있으니 비구니 교육은 비구니들에게 맡 겨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것이

반쪽 될뻔한 구족계단 "절대 울장의 가르침에 어긋나 지 않는다"며 관연경전까지 근 거로 첨부하고 있다.

그러나 계단위원회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지 난 7월 10일 열린 제1회 계단 위원회에서는 "울장의 가르침 에 어긋나므로 공문에 서명한

것이 울사스님들의 대제적인 입장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자 비구니스님들은 "그렇다면 수 계산림에 불참할 수 밖에 없 다"는 뜻을 총무원을 통해 전 달했다. 비구니스님들 나름대 로의 고충을 표출했던 것이다.

구족계단이 이렇게 반쪽이 될 위기에 놓이자 총무원이 적 극 중재에 들어가 올해는 전계 대화상 일타스님이 울장의를 맡기로 하고 비구니스님들도 일단 동의를 했다.

그러나 비구니계는 "비구니 계율강의는 비구니 들에게 맡겨달라"는 요청을 이후에도 계속 하기로 했다.

<비구니팔경계법>에 대한 해석과 준 용, 이에 맞물린 비 구니스님들의 위상 제고 요구 등은 여전히 불제로 남 아 있다. 일단 재는 보았지만 불 씨끼라 끼친 것은 아닌 것이다.

이경숙 기자

"신심있는 불자가 좋은 포교 방송 만든다."

지난달부터 교리공부 열기로 후끈거리고 있는 불교텔레비전 교리공부 모임의 캐치프레이즈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면 어 김없이 7층 회의실에 모여 공 부하고 있는 30여명의 불교TV 직원들은 포교방송의 특성을 살리고 유익한 방송기반을 다 지기 위해서는 교리를 익히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에서 공 부 모임을 시작했다.

지난달부터 두달간 강정기 경영관리 부국실에 지도로 불 교예절과 불교상식을 배워왔으 며 4월부터는 기획홍보부 박석 순부장의 지도로 본격 교리공 부에 돌입할 예정이다.



◊불교TV 교리공부 열기는 실질적인 현장교육을 위해 신사 를 찾아 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있다.

BBS 가을개편 '아침을 열며' 등 6개프로 신설

맞편성을 자제함으로써 불교 방송 특유의 편안함을 더욱 부 각시켰다.

폐지된 프로는 '불국도의 아 침 1부' '오늘을 이끄는 불교' '세계의 불교는 지금' '생방송 도반을 찾습니다' '언제나 푸른 불교' '환경패널' '생방송 정 보시대 1·2부' '내마음의 가요 1·2부'이며 신설된 프로는 '아 침을 열며' (07:20~08:00) '참선 이야기' (11:05~11:20) '음악의 마음' (14:10~15:00) '물같이 바 람같이 1·2부' (18:15~20:00)

'살며생각하며 2부' (저녁 12시 ~오전시)이다. 특히 매주 금 요일 방송되던 청소년프로 '언 제나 푸른불교'가 폐지돼 유일 한 청소년 포교프로그램이 없 어진다.

개편과 함께 새 진행자로는 '거룩한 만남'을 덕신스님(조 계중 문화국장)이 '불국도의 아침'을 법현스님(원각사주지)이 '살며 생각하며'를 송강스 님(미타사주지)이 맡아 비중있 은 프로에 스님들이 대거 기용 된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btn 직원 교리공부 '열기'

더좋은 포교방송만들기 30여명 동참 매주 토요일 모임...매월 사찰 참배도

이와함께 불교TV 교리공부 모 임은 실질적인 현장교육을 위해 '떠나세'라는 별도모임도 만들 어 한달에 1번씩 사찰을 직접 찾 아 스님의 법문을 듣고 문화유 산과 역사를 배우고 있는데 지 난달 1일과 29일 치악산 구룡사 와 양수리 수증사를 다녀왔다.

강정기 부국장은 "불교TV가 포교방송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초창기 법회법식을 촬영하면서 한템포 앞서가 준 비해야하는 카메라가 뒤늦게 움직여 내용자체를 서투르게 담을 수 밖에 없어 불자시청자 들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불교의식과 교리공부의 중요성 을 강조했다.

이러한 공부모임은 직원들에 게 '내가 곧 포교사'라는 자부

심도 심어준다.

첫모임부터 꾸준히 참석하고 있는 마케팅부의 송재민씨는 "불교교리를 배우며 작은 일 하나에도 느낄 수 있는 예의를 깨우치고 있다"며 "포교방송사 가 포교에 순응하지 못하고 역 포교하면 말할 수없는 고통을 주기 때문에 교리공부는 필요 하다"고 한다.

김원우 기자

BBS '불비니 동산' 진행 하이틴스타 김수정씨

"어린이 불자들과 함께하 는 프로를 맡게되어 기쁘요. 발달하게 방송하여 어린이불자 들의 사랑을 독차지 하렵니 다"

불교방송의 가을 정기개편 과 함께 어린이 프로 '불비니 동산'을 맡게된 탤런트 김수 정씨(중앙대 연영과)는 통 통 튀는 연기와 깜찍한 모습



"발랄한 방송으로 동심에 불심을"

으로 인기를 한데 모으고 있 는 하이틴 스타.

어머니 진임주씨와 함께 삼 각산 삼정사에 다니면서 불심 을 키우고 있는 김수정씨는 어머니의 간절한 불심으로 태 어났으며 빙그레 웃는다.

그랬던 그녀가 "스케줄이 빽빽했음에도 불교방송의 섭 외에 선뜻 승낙하게 됐다"며 "불자인 만큼 불교방송에 애 착도 강하다"고 말한다. 항상

순목에 단주를 차고 다닌다는 김수정씨는 "얼마전에 열반한 삼정사 삼일스님이 친필처럼 여기며 항상 생일기도를 해주 었다"며 감사한 만큼 "불교방 송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 다"고 밝혔다.

김수정씨는 89년 드라마 '일출'로 연기대상 특별상을 수상했고, 현재 교육방송에서 '이름다운 세상 커다란 꿈'을 진행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비구니스님들의 구족계 수 계법회" 하마터면 이러한 회유 의 일이 벌어질뻔 했다.

범어사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조계종 제16회 구족계단 수계산림에서 비구·비구니가 될 예비스님들 3백40여명이 11 월 1일 수계로 회향한다.

그러나 지난 주까지만 해도 교육과 수계법회에 비구니스님 들의 참여가 불투명했다.

비구니 계단위원회와 비구니 회에서 비구니스님들에 대한 울 장의를 관례대로 비구니에 게 맡겨달라는 간곡한 청이 계 단위원회에 받아들여지지 않았 기 때문이다.

비구니계는 지난 5월과 10월 공문을 통해 "단일계단 2부승

제도가 시작된 1980년 1월부터 93년까지 비구니 계율강의를 비 구니 교수사가 전담해 왔었는데 지난해만은 비구니스님이 비구니 계율 강의를 맡아 비구니 계단 의 정서에 문제가 되고 있으니 비구니 교육은 비구니들에게 맡 겨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것이

반쪽 될뻔한 구족계단 "절대 울장의 가르침에 어긋나 지 않는다"며 관연경전까지 근 거로 첨부하고 있다.

그러나 계단위원회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지 난 7월 10일 열린 제1회 계단 위원회에서는 "울장의 가르침 에 어긋나므로 공문에 서명한

것이 울사스님들의 대제적인 입장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자 비구니스님들은 "그렇다면 수 계산림에 불참할 수 밖에 없 다"는 뜻을 총무원을 통해 전 달했다. 비구니스님들 나름대 로의 고충을 표출했던 것이다.

구족계단이 이렇게 반쪽이 될 위기에 놓이자 총무원이 적 극 중재에 들어가 올해는 전계 대화상 일타스님이 울장의를 맡기로 하고 비구니스님들도 일단 동의를 했다.

그러나 비구니계는 "비구니 계율강의는 비구니 들에게 맡겨달라"는 요청을 이후에도 계속 하기로 했다.

<비구니팔경계법>에 대한 해석과 준 용, 이에 맞물린 비 구니스님들의 위상 제고 요구 등은 여전히 불제로 남 아 있다. 일단 재는 보았지만 불 씨끼라 끼친 것은 아닌 것이다.

이경숙 기자

민족불교의 교권과 자주권을 살아 있는가. 그리고 권력에 의 해 무참히 짓밟혔던 10·27법 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 엇인가.

전불련, 실천승가회 등 교계 재야단체들이 10·27법년 15주기를 맞 아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제기하고 이 를 통해 진정한 과 거청산이 이루어져 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0·27법년은 신군부의 정통 성 확보를 위한 희생양이었으 며, 그 법년의 발미를 제공한 주인공이 바로 불교계였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결국 가해자

도 피해자도 불교계 자신인 치 욱적인 사건이었다.

그런데 이미 세인들의 기억 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를 15년 전의 일에 대해 왜 굳이 진상 규명을 외치고 있는 것인가.

전불련이 지난 2일 '10·27 법년 책임자 참회추진위원회'를

진정한 교권 회복돼야 추진하면서 "법년이라는 크나 큰 아픔을 겪은 이후에 과연 그런 아픔을 되풀이 하지 않으 려는 내적인 정화가 선행되었 던가"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한 바 있다.

그렇다. 법년이후 불교계는 과연 얼마나 뼈를 깎는 자성을

하였는가. 그리고 지금 그 교훈 의 값을 얼마로 치부해 버리고 있는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실 령자들의 잦은 불교계 방문은 '불교계 개헌'이 시작됐 다. 문화발에 의해 무참히 짓밟 혔던 불교계가 이제는 쓸만한

(?) 표방으로 떠오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마다 쫓겨나고 흔들리는 배알없는 불교계의 자세다. 1600년의 불 교역사, 그 역사의 주체가 과연 누구며 어떤 의미에도 흔들림 없는 자주성을 확보하고 있는 지 불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5·18문제를 둘러싸고 전국 만이 분노하고 있다. 역사를 바 로잡자는 것이다. 역사는 산고 훈이며 내일을 비추 볼 수 있 는 거울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불교중흥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지명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추된 명 예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불 교계, 그보다도 실추된 명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만성적인 자기패배감의 순치.

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불 교는 항상 남의 입김에 좌지우 지되는 희생양일 수 밖에 없 다.

한명우 기자

불교인들의 민방,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그리움

무덤엔 그 여름도 가고 가을 들녘 비바람결에 흔들리는 코스모스의 청초한 멋스러움 고운 자태의 터질 것 같은 그리움이 아픈 사연으로 속세를 방황하는 목마른 독정 소리 되어 홀로 아픈 가슴 끌고 소울한 바람은 가슴 속 그리움으로 다가옵니다. 아리도록 꽃피어드는 목욕소리 기다림의 쓸쓸함에 서서 외로운 고독으로 나를 감싸안을 때 그리움으로 떠오르는 정겨운 얼굴은 나의 빈가슴으로 채워질 때 어느새 가슴 한 구석 가만히 새겨지는 그리움 하나 사랑하는 마음 만나고 싶은 마음 이자임 결혼 연구원으로...

남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자임

대우,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 업 확실한 미혼남녀 현영, 지방에 계신 불자들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합장 (법명: 無生子)

농협은리인구좌 : 112-01-021221 예금주 이 영 숙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 (02) 634-4910 ~ 2

• 역대 고승들의 오도송과 열반송 및 법문 모음집 •

개침의 노래

한권의 책으로 수많은 고승들과 만나다!!

□ 총 380여수의 「개침의 노래」국내 최초 출간!!

한국과 중국을 통틀어 역대 고승들의 오도송과 열반송, 법문을 총망라한 '개 침의 노래, 불교계 최초 출간!!

□ 개인·단체·학교·사찰 단위로 단체 주문 해도!!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은 후 율은 큰스님들의 오도송과 열반송, 큰스님 들의 행장을 알려주는 법문 등을 편저자 권성규님이 전국 사찰을 수십 년간 순례하여 모은 380여수의 주옥같은 노래!!

□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읽어야 할 책!!

「개침의 노래」는 스님과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는 지 침서가 될 것이며, 각종 공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마음을 씻 겨주는 청량제!!

◎ 연속 재판 !! 절찬리 판매중 !!

10부 이상 법포시를 원하시는 스님·불자 일반 인들은 도서출판 사람들로 연락을 주십시오 정가 의 10%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95 불교 출판계 스테디셀러!!

역대 고승들의 오도송·열반송·법문등을 소장 하고 있는 스님과 불자들은 도서출판 사람들로 연 락을 주십시오. 개정 보증판에 수록하겠습니다.

도서 출판 **사람들**

전화: (02)725-6752-4

팩스: (02)725-6920

신국판/450쪽/29,500원

불교 정보 95년도 신판 발간

(불기 2539년-1995년-가을호)

불교계의 자료집으로 제작·보급되는 불교정보는 불교계의 모든 정보와 자료를 보다 정확하고 알차 게 갖추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불자들의 많은 후원 있으시기 바랍니다.

● 기재된 내용

- 1) 불교 종단의 임원 및 주소, 전화번호, 역사 등
- 2) 사찰의 건립 및 중창 역사, 주소, 전화번호, 현존 문화 재, 소속종단, 조실 및 현 주지 등
- 3) 전통사찰에 전해 오는 설화화 사찰 기록
- 4) 사찰과 포교당의 법회, 위치 및 교통편 안내
- 5) 불교계 언론 및 잡지사, 출판사, 불교용품 전문점 등
- 6) 불교계 각종 학교, 신도회 및 일반 신학회 안내
- 7) 사찰과 신학회는 각 시도별로 가나다 순으로 분류하 였습니다

※ 위와 같은 자료를 제공하여 주시면 개정판에 기재하겠습니다.

※ 불교정보 1권당 1만원입니다.

※ 책 대금을 다음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주시면 접수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 053-12-023151 서울신협은행 15501-2537606

외환은행 150-13-11760-5 새신협(우회) 0119655-006025

국민은행 832-24-0006-924 조흥은행 390-04-164932

예금주 : 이성호

도서출판 다모다

☎ 02-725-6000

광고	구독	신청문의	신청문의
7	7	7	7
3	3	3	3
7	7	7	7
1	1	1	1
0	0	0	0
6	6	6	6
9	9	9	9
7	2	3	3